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여성발명품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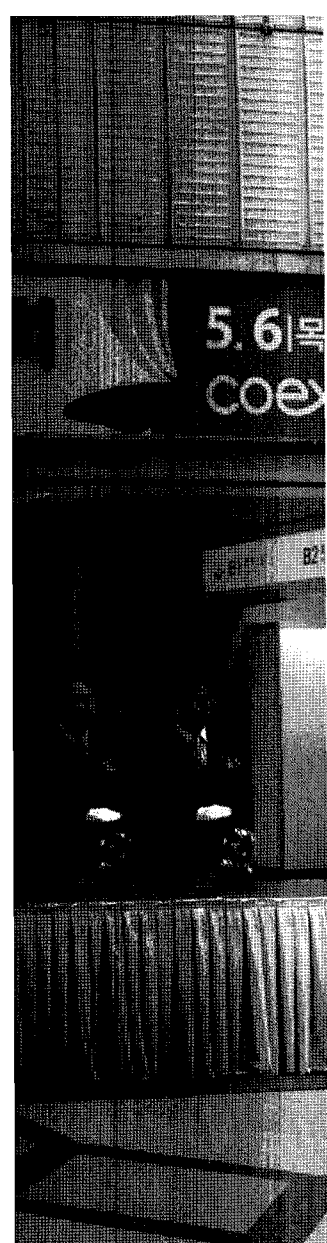
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Exposition 2010



2010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성공과 여성발명의 힘

지난 5월 발명의 달 첫 행사로 개최된 「2010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34개국, 5백여 명의 여성발명인이 참석해, 세계 발명계에서 확실히 인정받는 국제 발명대회로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는 세계 여성발명·기업인의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여성발명품의 홍보, 전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발명대회이나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는 어떠한 국제 발명대회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세계 최대의 여성발명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대한민국 여성발명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큰 의미로 다가온다. 불과 3년이라



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이렇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여성발명인들의 간절한 소망과 관심, 뜨거운 열의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할 때만 해도 이 대회가 매년 열릴 수 있을까라고 반신반의 했다. 하지만 28개국에서 3백여 명의 여성발명가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고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가 발족함으로써 세계 발명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는 멋진 출발을 했다.

그리고 2009년, 경제 불황과 신종 플루의 여파로 대표단 초청이 난항을 겪고 기업, 기관들의 협찬은 취소되었다. 하지만 여성발명인의 단결과 노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여성발명기업인워크숍의 시작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냈다.

그리고 올해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등 중동 지역에서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고, 몽골, 태국, 이란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기업, 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대표단이 입국하는 등 대회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와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계 여성발명인들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출발점

2010년 행사는 크게 출품된 여성발명품을 심사·시상하는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KIWIE)」, 국내외의 우수 여성발명품을 전시, 홍보하는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여성의 창의성과 미래 시장'이란 주제로 열린 「세계여성발명포럼」, 여성·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프로그램인 「세계여성발명·기업인 워크숍」 등 4개 행사로 구성되었으며 약 7만 5천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큰 성황을 이뤘다.

지난 5월 6일(목)부터 9일(일)까지 서울 코엑스 홀A에서 개최한 「2010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Exposition : KIWIE2010)」에는 전 세계 여성발명인들의 3백여 점의 발명품이 출품, 아이디어를 겨뤘다. 함께 개최된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에도 120여 개의 여성발명기업의 우수 여성발명품과 아이디어 상품이 전시되었다.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KIWIE)」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이 대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세계 여성발명기업인들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 세계 여성발명기업인들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여성발명품의 홍보 및 전시를 통해 실질적인 판로개척 및 비즈니스 매칭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도 그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회를 통해 21세기의 지식재산경제시대에서 여성발명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받거나 발명 잠재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성장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여성들의 공동체이자 네트워크로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가 만들어졌다.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는 앞으로 여성발명 제품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전 세계 여성발명인, 기업인 간의 상호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 활동 범위를 넓히고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성장의 시너지를 만들어 갈 것이다.

대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랑프리 수상

2010 세계여성발명대회의 영예의 대상은 손제아(락시스)의 'DIY 레버락' 에게 돌아가 우리나라가 대회 3회째를 맞아 처음으로 그랑프리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

대상을 수상한 'DIY 레버락' 은 철문으로 된 현관문뿐 아니라, 나무로 된 방문이나 사시 등에도 드라이버 하나로 자가 설치가 가능한 신개념 DIY 디지털 도어락이다. 기존 도어락과는 달리 전원 없이도 잠겨, 건전지 소모량이 70% 절감되며 기존 문의 훼손 없이 문고리만 빼고 그 자리에 쉽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 DIY 시장을 겨냥한 수출주도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키위상) 국내 수상자로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신축 발열사를 이용해 기존의 침대 매트리스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발열이 되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전병옥(실버레이)의 '신축되는 침대용 발열 매트리스'가 선정되었다. 신축 발열사란 전기를 통해 자체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첨단 신소재로, 섬유로 짜면 열을 내면서도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고 세탁도 가능해 활용도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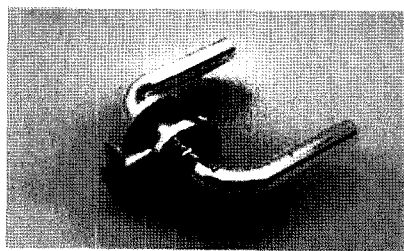
원적외선의 광선 온열을 이용하여 72시간 홍삼을 껍질째 달일 수 있고 시간, 온도 조절이 가능해, 정해진 시간만큼 달인 후에도 자동 보온 기능으로 넘어가 장기간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내용물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북명희(홍피직우리인삼)의 '원적외선 홍삼제조기' 역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특별상을 수상한 내국인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상에 사진이나 카드 엽서를 끼울 수 있으며, 펼쳐서 입체 구조물을 만들고, 식물을 심어서 재배할 수 있는 미니정원으로 변신하는 조영주(블루밍)의 '식물을 식재 가능한 입체박스'와 전기 제품의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장치로서 메인스위치로 조절할 수 있어 외출, 취침 시 한 번에 켜고 끌 수 있는 최성은(엔터메디)의 '통합형 대기 잔력 차단기', 청국장을 냄새가 나지 않게 가공해 땅콩버터처럼 빵에 발라 먹을 수 있게 만든 정정례(해누리)의 '청국장 버터'가 뽑혔다.

안동지역 특산물인 참마와 쌀을 원료로 안동 하회탈을 형상화한 윤명희(한국라이스텍)의 '안동 탈빵' 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기업인상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특허청장상에는 파주 특산물인 장단콩(검은콩/서리태)를 볶아 초콜릿을 입혀, 유해 독성 산소의 생산을 억제하고 노화 방지와 건강에 좋은 공지에(DMZ파주드림푸드)의 'DMZ파주장단콩초콜릿' 이, 디자인 부문에 주는 서울특별시장상에는 책상 가운데 회전판 안에 다양한 재료를 두고 8명의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김은(아루마루)의 '팔각회전책상' 이 각각 선정되었다.

기업 후원상으로는, 인체, 환경에 무해한 해초류로 만든 친환경 '음식쓰레기용 탈취제 고소탈'로 윤옥연(오토윈)이 한화증권상을, 전통 한지에다 식물성 고분자 수지를 섞어,



〈대상을 수상한 락시스 도어락〉

100% 생분해되지만 강도는 일반 플라스틱 카드에 맞먹고 물에 젖지도 않는 김지수(한지이야기)의 '친환경 저탄소 한지카드'가 한국씨티은행상을 시상했다.

대회가 끝나고 실시한 참가업체 대상 심층 조사에 따르면 세계대회 참석이 각종 언론 매체에 소개되는 홍보 효과 뿐 아니라 제품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에도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을 탄 락시스의 도어락은 이 대회에서 대상을 탄 후 많은 방송, 신문 매체와 인터뷰, 보도된 것뿐만 아니라 무역, 유통업체, 대리점과의 상담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투자 여부도 논의 중이다.

또 실버레이의 발열 매트리스는 무역 업체와 역대 해외 수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흥피직 우리 인삼의 홍삼제조기 역시 여러 유통 업체와 국내외 판매에 대한 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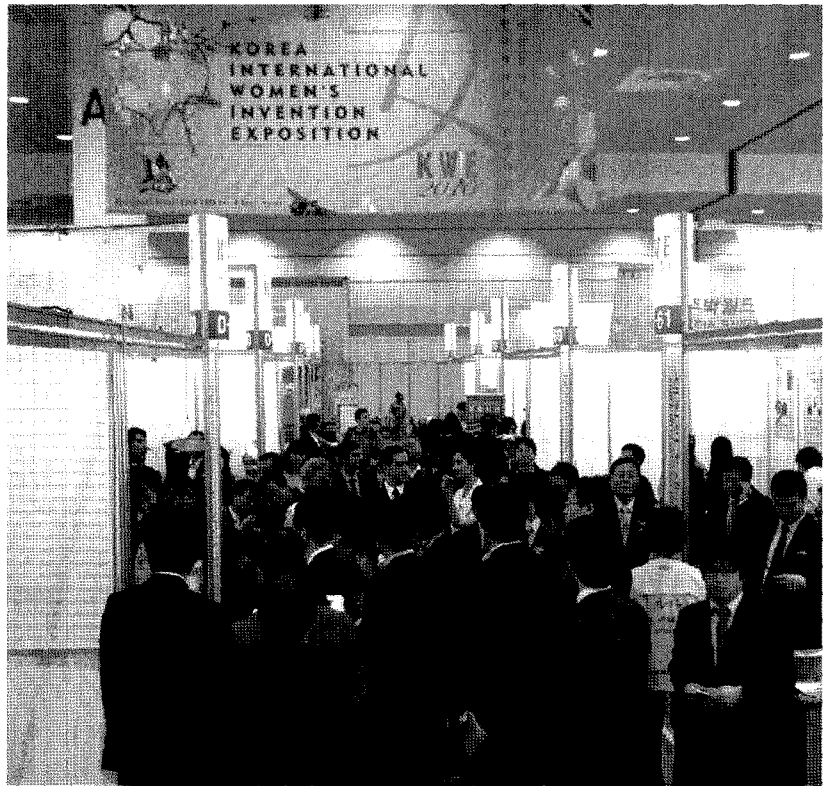
친환경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에코웍스는 대회 수상 실적을 바탕으로 "2010 브랜드 스타기업"과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동경전시회에 출품하고 일본 바이어들과도 계약을 협의 중에 있다.

알알이푸드사는 국내 유수의 홈쇼핑업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에어락은 대만, 몽골 바이어들로부터, 아루마루는 교육 관련 업체 등에서 상담 및 납품 요청이 이어지는 등 참가 및 수상 업체들이 대회를 통해 유통과 판매의 물고름을 트는 사례가 많았다.

여성발명의 다채로움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는 여성발명인, 여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업체의 우수 발명특허제품, 아이디어 상품이 전시되었다. 2001년부터 열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여성기업 전시행사다.

전시장은 국내·외 우수한 여성 발명제품들을 심



사, 시상하는 발명대회 출품관, 여성기업인들의 발명품이 전시되는 박람회관, 국내외 발명관련 단체기관의 홍보관, 발명 문화 행사가 개최되는 이벤트관으로 구성되었다. 태국, 몽골, 폴란드, 대만, 시리아, 러시아 등 34개국에서 온 여성발명가들의 발명아이디어가 전시되었다. 지진 대비용 책상, 코코넛 열매껍질을 가공해 만든 가방, 바나나로 만든 국수, 시각장애인용 말하는 자, 무선핸드폰 충전기 등 여대생부터 연구소, 대학,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여성들의 다양한 발명품들이었다.



주차 공간임을 알려주는 소리 나는 주차 블록, 혼자서도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운동기구, 소염, 진통치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패치식 나노 바이오 의료기기, 청도지역의 감을 이용해 만든 천연 머리 염색제, 외부로부터의 공기 유입을 차단해 질 좋은 과실주를 만드는 안전발효용기, 물에 불리지 않고 바르고 문지르기만 해도 노폐물이 벗겨져 나오는 때 크림, 기존 스타킹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체 무해한 특수 실리콘을 도포한 밴드 스타킹 등 보기에 신기하고 기능적인 아이디어 제품도 소개되었다.

또 오미자도토리고추장, 고농축 홍삼환, 생민들레 액상추출액, 참뽕양파김치, 기능성 호두파이, 즉석식 분말 고추장, 산머루 청국장환, 바나나식초, 화덕 재래김, 수삼을 잔뿌리까지 증기 건조시킨 원형홍피직 인삼 등 기능성 식품과 건강식품들도 맛볼 수 있었다.

행사장 뒤편에는 테디베어, 천연비누 만들기, 발명퀴즈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문화 공연이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에는 신기하고 특이한 발명품 뿐 아니라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 봤을 만한 생활 속에서 흔히 부딪히는 아이디어 제품들도 많이 소개된다. 여성발명의 영향력과 진가를 눈으로, 손으로 경험해 볼 수 있고, 발명아이디어가 우리 주변에 여기 저기 널려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자리였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발명을 느낄 수 있는 체험장이라 할 수 있다.

2010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 “여성의 창의성과 미래시장”

지난 5월 7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세계 여성발명인들의 상호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2010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이 ‘여성의 창의성과 미래시장’이란 주제로 열렸다.



‘특허 전쟁의 시대, 여성발명기업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서울대 경영대학 조동성 교수의 사회로 왕빈잉(Mrs. Wang Binying) WIPO 사무차장,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알리샤 아담작(Dr. Alicja Adamczak) 폴란드 특허청장이 발표했다.

‘녹색 성장과 여성발명’의 제2세션에서는 심영택 서울대 법과대학원 교수와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단장, 고영란 (주)에코웍스 대표이사가 최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 성장과 기업 발전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제3세션에서는 김영순 명지대 부총장이 사회를 맡아 ‘차세대 여성 지식재산인력의 양성방안’을 주제로 넘낫 송타나피타(Prof. Numyoot Songthanapitak) 태국 라자망갈라대 총장, 마하 바키엣 자키(Dr. Maha Bakhiet Zaki) 아랍국가연맹 IP팀장, 치암 루린(Ms. Chiam Lu Lin) 싱가포르 특허청사무차장이 발표자로 나와 각국의 여성 지식재산인력의 육성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Forum)은 지식재산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여성발명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지식재산발전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포럼은 세계 여성발명인들과 기업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 또는 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들을 공유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나라별 격차를 줄이고 발명의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여성발명기업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실무와 체험 학습이 어우러진 국제 IP교육, 세계여성발명·기업인워크숍

지난 5월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이화여자대학교 ECC극장에서 전 세계 여성발명인 약 150명가량이 참석



한 가운데 「세계여성발명·기업인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IP파노라마」 중 6개 과정을 WIPO의 그리크발 자야(Mr. Guriqbal Singh) 중소기업국장과 라즈나 자야 푸리(Mrs. Rachna Singh Puri) IP컨설턴트, 라리사 쿠쉬너(Mrs. Larysa Kushner) 유럽인문대학(European Humanities University) 컨설턴트, 서울수 WIPO 과장이 강의했다.

이 외에 이종철 한성백제박물관 추진 단장의 ‘한국인의 정신문화’, 이영옥 진주셀 대표의 ‘한국의 전통 자개 제품 만들기’ 등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과 LG디스플레이 김주섭 IP센터장의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사례’, 오기영 충남대 겸임교수의 ‘여성 발명과 발상의 전환을 통한 틈새 시장 창출’, 조영주 블루밍 대표와 정정례 해누리 대표의 여성발명기업인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다. 또 강익와 함께 한국의 성공 기업체의 탐방 및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워크숍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인 IP 파노라마(IP Panorama)와 한국 여성발명 협회의 오래 여성발명교육 노하우를 접목해 실제 비즈니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중심의 사례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세계여성발명기업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는 우리 한국 여성의 힘으로 탄생시킨 발명계 최대의 세계여성축제다. 세계여성발명 대회는 발명을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보고 많은 여성들에게는 창조적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자리다.

지식재산시대인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패러다임 중 하나는 창조적인 여성발명인이다. 여성·창조·발명·경제력, 그리고 미래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뛰어난 재주와 창의력을 가진 여성들이 발명에 대한 참여와 노력을 더해간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한 국가의 성장과 나아가 세계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이 대회와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가 계속 확대, 성장해야만 세계의 더 많은 여성들에게 발명을 전파해 경제력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전 인류가 발전해 갈 수 있다.

이제 여성 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부, 전 세계가 여성들에게 발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발명을 계기로 훌륭한 여성경제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민국발명진흥회**

